

# 영어의 두 가지 양보조건문과 *even*의 의미에 대한 함의

임동식\*†

홍익대학교

**Dongsik Lim. 2014. Two Types of Concessive Conditionals in English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Semantics of ‘even’.** *Language and Information* 18.2, 123–140.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to identify two types of *even if* concessive conditionals, *standing-ifs* and *introduced-ifs* (Bennett 1982) in terms of whether the truth of the consequent is ‘entailed’ (the consequent-entailment problem in terms of Lycan 2001); and to analyze these two types of concessive conditionals in a compositional way. Here we argue that, following Guerzoni and Lim (2007), *even if* conditionals can be analyzed as the cases where *even* gets its focus in conditionals. We also argue that the consequent-entailment problem can be accounted for in a compositional way if we identify the focus as well as the scope of *even* in conditionals correctly. We further argue that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supports the scope theory of *even*, among two theories of *even* previously proposed in various works. We also consider the possibility where concessive conditionals without *even* can be analyzed as an extension of the analysis proposed in this paper. (Hongik University)

**Key words:** *even*, concessive conditionals, consequent-entailment, *standing-if*, *introduced-if*, scope theory, lexical ambiguity theory.

## 1. 서론

Bennett (1982)은 초점사 *even*이 포함된 영어의 양보조건문 (concessive conditionals), 즉 *even if* 형태를 지닌 양보조건문을 크게 두 가지로, 즉 후건함축 양보조건문 (introduced-if)과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 (*standing-if*)으로 구분한다.<sup>1</sup> 전자의 예는 (1a), 후자의 예는 (1b)이다.

\* 이 논문은 Guerzoni and Lim (2007)를 기반으로 하여, 양보조건문에 대한 이 논문의 분석이 *even*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논한 것이다. 논문 수정에 도움을 주신 세 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남아 있는 오류는 모두 필자의 것이다.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dlim@hongik.ac.kr

<sup>1</sup> Bennett (1982)이 사용한 명칭인 *introduced-if*와 *standing-if*는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드러내주지는 못하는 느낌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후건함축 양보조건문과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이라는 용어를 각각에 대해서 사용한다.

- (1) a. Even if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b. Even 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의 차이점은, 번역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1a)와 같은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후건이 항상 참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반면,<sup>2</sup> (1b)와 같은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그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a)의 경우 다리가 놓이든 놓이지 않든 상관없이 화자가 (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지만, (1b)의 경우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만약 화자가 술을 조금도 마시지 않는다면 John은 해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러한 차이가 반사실적 조건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며 조건문 일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건함축 양보조건문과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의 차이는 가정법적 조건문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문에서도 나타난다. (2)의 두 예문을 보자 (Guerzoni and Lim (2007)에서). (2a)에는 친척들이 방문하든 방문하지 않든 그가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지만, (2b)에는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친척들이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 (2) a. Even if his relatives visit, he will feel miserable.  
 b. Even if [one]<sub>f</sub> of his relatives visits, he will feel miserable.

이 논문은 Guerzoni and Lim (2007)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양보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또한 이러한 분석이 영어의 *even*에 대한 기존의 분석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 논문은, Guerzoni and Lim (2007)의 논의에 따라, Rooth (1985, 1996) 등의 초점의미론 (focus semantics)과 대안의미론 (alternative semantics)에 기반해서 *even*의 의미를 분석하고, König (1986) 등에서 제시된 것처럼, *even*의 영향권 (scope)과 초점 (focus)을 정확히 설정한다면 *even if*를 *even*과 *if*의 조합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의 Guerzoni and Lim (2007)은 이러한 조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만 논의를 하였으나, 이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 결과가 *even*의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에 어떠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특히, *even if*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even*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이론, 영향권 이론 (Karttunen and Peters 1979, Wilkinson 1996, Guerzoni 2003 등)과 어휘적 중의성 이론 (Rooth 1985, Giannakidou 2007 등) 중에서 영향권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even*이 조건문의 전건, 즉 *if*절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논의함으로써 다룰 것이다.

<sup>2</sup> 여기에서는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진리조건적인 의미인지 비진리조건적 의미인지, 비진리조건적 의미이면 전제인지 함축인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표현한다.

## 2. *even*의 의미

이 논문은 Rooth (1985)의 초점의미론과 대안의미론의 관점에서 *even*의 의미를 분석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바와 같이, 이 논문은 *even*이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지만, 진리조건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even*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있는 명제와 *even*이 나타난 명제는 동일한 진리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 논문은 *even*이 항상 역양상의 초점을 동반한다고 가정한다. 이 초점은 *even*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명제에서 초점에 해당하는 요소를 문맥에서 눈에 띄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대안이 되는 요소로 대체함으로써 다양한 대체명제 (alternatives)를 생성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even*은 대체명제들의 집합에 속해 있는 대체명제들에 대해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전제 (presupposition)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 (3) a. Existential Presupposition (이하 ExistP):  
대체명제들의 집합에서 *even*을 제외한 명제, 그 자체를 제외한 참이 되는 다른 명제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 b. Scalar Presupposition (이하 ScalarP):  
*even*을 제외한 명제는 대체명제들의 집합에서 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명제이다.

그러면 다음의 문장을 예로 들어서 이러한 직관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살펴 보기로 하자.

- (4) John read *even* [*Ulysses*]<sub>f</sub>.

*even*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단언의 대상이 되는 기본명제를 *p*라고 하자.<sup>3</sup> 그러면 (4)의 기본명제는 (5)와 같다.

- (5) Prejacent  $p = \lambda w$ . John read *Ulysses* in *w*.

*even*이 이 기본명제를 논항으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even*은 명제에 대해서 영향권을 취해야 할 것이다. 즉 (4)의 LF는 다음과 같다.

- (6) LF: [*even* [John read [*Ulysses*]<sub>f</sub>]]

더 나아가, 초점이 *Ulysses*에 놓여 있으므로, 대체명제들은 *Ulysses*를 문맥에서 눈에 띄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대안이 되는 요소로 대체하여서 생성되게 될 것이다. 편의상 이 요소들의 집합이 아래의 (7)의 A와 같다고, 즉 문맥에서 눈에 띄이는 책이 다음의 4권이라고 가정하자.

<sup>3</sup> 최근 논의에서는 이에 대해서 prejacent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려운 용어인데, 이 논문에서는 형식화에서는 prejacent 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논의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기본명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7) The set of contextually salient books:

A = {Ulysses, Pride and Prejudice, Alice in Wonderland, Where the Wild Things Are}

이렇게 가정하고, 초점에 의해서 형성되는  $p$ 의 대체명제들의 집합을  $ALT(p)$ 라고 하자. 그러면 형식적으로  $ALT(p)$ 는 (8)과 같이 정의된다.

(8)  $ALT(p) = \{q : \exists x \in A[q = \lambda w. \text{John read } x \text{ in } w]\}$   
 = {John read *Ulysses*,  
 John read *Pride and Prejudice*,  
 John read *Alice in Wonderland*,  
 John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이  $ALT(p)$ 와 기본명제  $p$ 에 대해서 *even*은 두 전제, 즉 ExistP와 ScalarP를 만족시킬 때 정의된다. Heim and Kratzer (1998)과 같은 의미 합성 방식을 가정하고, 또한 동일한 책에서 가정된 것처럼 전제를 정의 조건으로 가정한다면, *even*이 도입하는 전제에 대한 형식화는 다음과 같다.

(9)  $[[\text{even}]](Alt(p))(p)(w)$  is defined iff  
 (i)  $\exists q \in ALT(p)[q \neq p \ q(w) = 1]$ , and (ExistP)  
 (ii)  $\forall q \in ALT(p)[q \neq p \rightarrow p \leq_{\text{likely/expected}} q]$  (ScalarP)

(9)의 두 정의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단언으로 *even*은 기본명제를 돌려준다. 즉 다음과 같다.

(10) If defined,  $[[\text{even}]](Alt(p))(p)(w) = p(w)$

이상의 정의조건을 풀어서 써 주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11) a. ExistP: There is a proposition which is true in the set of contextually salient alternatives (that is the set in 8) except the proposition that John read *Ulysses*.  
 b. ScalarP: The proposition that John read *Ulysses* is the least likely to be true among the set of contextually salient alternatives.

이 두 가지 전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가정된다. 첫 번째로, (7)처럼 대체명제들 사이의 함의 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ExistP와 ScalarP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된다. 예를 들어 (7)의 경우 책의 난이도가 다음과 같다고, 즉 ‘Ulysses’가 가장 읽기 어렵고 ‘Where the Wild Things Are’가 가장 읽기 쉽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책을 읽을 가능성에 따라서 요소의 순서를 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12) Ulysses  $\leq_{\text{likely/expected}}$   
 Pride and Prejudice  $\leq_{\text{likely/expected}}$   
 Alice in Wonderland  $\leq_{\text{likely/expected}}$   
 Where the Wild Things Are

즉 일반적으로 John 이 ‘Ulysses’를 읽을 가능성이 가장 낮고 ‘Where the Wild Things Are’를 읽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ScalarP는 (11b)와 같이 설정될 수 있고, ExistP는 (11a)와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Ulysses’이외에 어느 책을 읽었는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로, 대체명제들 사이의 함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 (13) a. John even drank [10 cups]<sub>f</sub> of coffee.  
 b. Alt((7a)) = {John drank 9 cups of coffee,  
 John drank 8 cups of coffee, ...  
 John drank 1 cup of coffee}

(13a)에서 초점이 생성하는 대체명제들의 집합은 (13b)와 같다. 이 경우 커피 10잔을 마시는 것은 커피를 그보다 적게 마시는 것을 함의한다 (예를 들어 9잔을 마시기 전에는 10잔을 마실 수 없다). 즉 커피 10잔을 마신다는 명제는 커피를 그보다 적게 마신다는 명제가 참이 되어야만 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ExistP는 이러한 함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주어진 명제들의 집합에서 (7a)가 가장 가능성이 낮은 명제라는 ScalarP 역시 주어진다.

이하의 논의에서 우리는 이 절에서 서술된 것과 같은 *even*의 의미를 가정할 것이다. 그리고 *even*의 의미를 이렇게 가정하고 *even*의 초점과 영향권을 적절하게 가정한다면 *even*이 포함된 양보조건문의 의미를, 그리고 더 나아가 *even if* 구문의 의미를 합성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 3. 제안 1: 두 가지 유형의 *even if* 구문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논문은 *even if* 구문의 *even*을 2절에서 서술된 것과 같은, 일반적인 *even*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even*과 항상 동반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even*의 초점이다.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도입부에 제시되었던 예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아래에 반복).

- (14) a. Even if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b. Even 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14b)와 같은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즉 억양상 초점은 *one*, 또는 *one ounce*에 놓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14a)와 같은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억양상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언뜻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만약 *even if*의 *even*이 일반적인 *even*과 마찬가지로 초점을 동반한다면,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초점은 어디에 놓이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Guerzoni and Lim (2007)을 따라, 이 논문은 영어 화자들의 억양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억양상의 강조점이 전건의 주동사에 오거나 아니면 조동사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즉 (14a)의 초점은 (15a)나 (15b)와 같은 형태가 된다.

- (15) a. Even if the bridge were [stan]<sub>f</sub>ding, I would not cross.  
 b. Even if the bridge [were]<sub>f</sub> standing, I would not cross.

왜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이러한 식으로 초점이 실현되게 되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Höhle (1992)의 진리치 초점 (*verum focus*)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조건문의 전건의 본동사나 조동사에 직접 실현되는 억양상의 초점은 오로지 두 개의 대체명제, 즉 *even*을 제외한 명제 그 자체와 전건이 반대의 극성을 지니는 명제를 원소로 지니는 집합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통사론적 관점에서 이는 Laka (1990)의  $\Sigma$ -phrase처럼 하나의 절의 극성 (*polarity*)을 결정하는 기능핵에 초점이 오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핵은 PF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즉 발음이 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이 기능핵에 초점이 오게 되면 그 초점이 PF에서는 본동사나 조동사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치 초점이 문장의 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존재한다는 것은 조건문의 전건이 부정이 될 때를 고려하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건이 부정될 때에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억양상의 강조점은 부정, 혹은 부정을 포함하는 조동사에 온다.<sup>5</sup>

- (16) Even if the bridge had [not]<sub>f</sub>/[hadn't]<sub>f</sub> collapsed, I would not cross.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진리치 초점에 올 수 있는 요소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한정된다. 즉 원래 명제를 받아서 그 명제를 그대로 내 놓는 요소와 (이하 *aff*), 원래 명제를 받아서 그 명제의 부정을 내 놓는 요소 (이하 *neg*)이다.

- (17) Two types of *verum foci*  
 a.  $[[\text{aff}]] = \lambda p_{\langle s, t \rangle} \cdot p$   
 b.  $[[\text{neg}]] = \lambda p_{\langle s, t \rangle} \cdot \sim p$

<sup>4</sup> 다른 방식으로 *Verum focus*를 활용하고 있는 예로는 Creswell (2000), Romero and Han (2004) 등이 있다.

<sup>5</sup> 이 점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진리치 초점의 존재를 좀 더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원어민 화자들의 억양을 관찰하여 이것이 강세의 차이인지 아니면 높이의 차이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even*을 포함한 양보조건문의 경우 *even*의 영향권이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 전체에 걸친다고 가정한다. 이는 *even*에 동반되는 초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대체명제의 집합 역시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 전체를 포함하는 명제들의 집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명제들은 이 조건문 전체에서 초점을 받은 요소를 문맥에서 드러나는 같은 유형의 다른 요소들로 대체함으로써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4)의 두 문장의 LF를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 (18) a. LF of (14a):  
 [even [<sub>TP</sub> [<sub>CP</sub> if [aff]<sub>f</sub>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sup>6</sup>  
 b. LF of (14b):  
 [even [<sub>TP</sub> [<sub>CP</sub> 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절의 나머지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에서는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에서는 왜 그러한 의미가 생겨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 3.1 후건함축 양보조건문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에 해당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기로 하자 (아래 반복).

- (19) Even if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앞에서 우리는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전건의 극성을 결정하는 기능핵에 초점이 온다고 가정하였으며, 또한 *even*의 영향권이 문장 전체에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염두에 두었을 때, (19)에서 *even*의 초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대체명제의 집합은 (18)에서 *even*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와, 전건의 극성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꾼 명제 등 두 가지 명제만 포함하는 집합, 즉 (20)과 같은 집합이 된다.

- (20) ALT((19)) = {If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If the bridge were not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20)에서 도출되는, (19)의 *even*이 도입하는 ExistP와 ScalarP는 다음과 같다.

- (21) a. ExistP of (19):  
 Except the proposition that if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there is a proposition in ALT((19)) which is true.  
 b. ScalarP of (19):  
 The proposition that if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is the least likely proposition to be true in ALT((19)).<sup>7</sup>

<sup>6</sup> 진리치 초점을 이렇게 구조상 상위에 나타낸 이유는 5절에서 다루어진다.

<sup>7</sup> 역명의 심사위원 한 분께서 대안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 ScalarP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다. 사실 우리가 아래에서 보게 될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과는 달리, 후건함축

여기에서 (20)의 ALT((19))에 오로지 두 개의 명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하나는 (20)에서 *even*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명제고, 다른 하나는 그 명제의 부정이다. 앞에서 우리는 *even*이 진리조건적으로는 어떠한 의미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20)에서 *even*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명제는 단언 그 자체로서 참이다. 그리고 우리는 (21a)에서 본 것과 같은 *even*이 도입하는 ExistP에 의해 *even*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명제 이외에 또 다른 명제가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명제와 또 다른 명제는 (20)의 ALT((19))에 있는 명제 전부가 된다. 즉 ALT((19))에 있는 두 명제는 모두 참이 된다. 따라서 (22)에서 보는 것처럼, 단언과 ExistP에 의해서 John이 다리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는, 즉 후건이 항상 참이라는 의미가 도출된다.

- (22) If the bridge were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Rightarrow$  Assertion  
 If the bridge were not standing, John would not cross.  $\Rightarrow$  ExistP

—  
 John would not cross.

즉 *even*의 초점이 생성하는 대체명제의 집합이 단언 그 자체를 포함해서 오로지 두 개의 대체명제만을 포함하는 경우, 두 개의 대체명제 가운데 하나는 단언 그 자체로서 참이 되고, 다른 하나는 ExistP에 의해 참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대체명제는 조건문의 전건이 긍정되느냐 부정되느냐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며, 후건은 동일하다. 전건의 긍정과 부정은 합쳐서 조건문의 전건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므로,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낳게 된다.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에서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이유는 대체명제가 두 개로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굳이 긍정/부정의 쌍이 아니라 하더라도, 초점이 단언 그 자체를 포함해서 오로지 두 개의 대체명제만 생성해 내고, 이 두 개의 대체명제가 모든 가능성을 전부 포함하는 경우는 항상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실제로도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23)의 예들에서 각각의 초점은 *in/out* (23a), *heads/tails* (23b), *up/down* (23c)이라는 두 개의 대체명제를 생성하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 주장한 대로 이들 조건문에서 역시 후건의 의미가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 (23) a. Even if you placed it [in]<sub>f</sub>doors, this plant would die.  
 b. Even if the coin turned up [heads]<sub>f</sub>, she would claim she won.

---

양보조건문에서는 대안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ScalarP가 존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ScalarP는 단언되는 명제가 단언되지 않는 다른 명제에 비해서 참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 제시하여 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리가 서 있을 때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는 명제 (즉 (19)에서 단언되는 명제)가 참이 될 가능성은 ‘다리가 서 있지 않을 때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는 명제 ((20)에서 단언이 아닌 명제)가 참이 될 가능성보다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ScalarP는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에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c. Even if Roger Ebert gave thumbs [up]<sub>f</sub> to that film, I wouldn't see it.

### 3.2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에서는 왜 후건이 참인 의미가 안 드러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앞에서 봤던 문장을 살펴보자.

- (24) Even 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우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Bennett (1982)의 분석과 Guerzoni and Lim (2007)의 입장을 따른다. 우리는 *even*의 초점이 *one ounce*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이 초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대체명제의 집합은 위스키의 양이 *one ounce*가 아닌 다른 양으로 대체된 명제들의 집합, 즉 (25)와 같다고 가정한다.

- (25)  $ALT((24)) = \{$  If John drank one ounce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If John drank two ounce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If John drank three ounce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  
If John drank a pint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 $\}$

이렇게 본다면 (24)의 ExistP와 ScalarP는 다음과 같다.

- (26) a. ExistP of (24):  
There is a proposition in  $ALT((24))$  which is true except (24).  
b. ScalarP of (24):  
The proposition that if John drank one ounce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is least likely to be true among the propositions in  $ALT((24))$ .

함의 관계에 의해서, 위스키 1온스를 마실 경우 John이 해고될 것이라는 명제는 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명제가 된다. 그리고  $ALT((24))$ 에 있는 명제들 가운데 어느 하나는 참이 되는데, 이 명제들은 전부 위스키 1온스 이상을 마시는 경우 John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ExistP와 ScalarP, 그리고 단언을 어떠한 식으로 조합하든지 John이 위스키를 1온스보다 적게, 아니면 아예 안 마셔서 John이 해고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에서는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에서 왜 오직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에서만 후건이 항상 참이라는 의미가 나오는지, 그리고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에서는 왜 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대체명제들의 집합에 오로지 두 개의 명제만이 나타나고, 하나는 단언 그 자체라는 점에서, 다른 하나는 ExistP에

의해서 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가능성이 두 개로 고정되지 않고,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의 나머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even*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이론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고, 이 논문의 주장이 어떻게 *even*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조건문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4. *even*에 대한 두 가지 이론: 영향권 이론 vs. 어휘적 중의성 이론

*Even*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제기된 계기는 *even*이 부정의 영향권 아래에 나타나는 경우 *even*이 도입하는 전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문장을 생각해 보자.

(27) John did not read even [*Where the Wild Things Are*]<sub>f</sub>.

직관적으로, (7)과 같이 4권의 책이 문맥에서 고려되고, 읽기 어려운 정도가 (12)와 같다고 가정할 때 (아래 (28)a, b로 반복), (27)의 초점에 의해 생성되는 대체명제들의 집합은 (29)와 같고, *even*에 의해서 도입되는 ExistP와 ScalarP는 각각 (30a)와 (30b)와 같다.

(28) a. The set of contextually salient books:  
 {*Ulysses*, *Pride and Prejudice*, *Alice in Wonderland*, *Where the Wild Things Are*}

b. *Ulysses*  $\leq_{\text{likely/expected}}$   
*Pride and Prejudice*  $\leq_{\text{likely/expected}}$   
*Alice in Wonderland*  $\leq_{\text{likely/expected}}$   
*Where the Wild Things Are*

(29) ALT((27)) = {John did not read *Ulysses*,  
 John did not read *Pride and Prejudice*,  
 John did not read *Alice in Wonderland*,  
 John did not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30) a. ExistP of (27):  
 There is a proposition which is true in ALT((27)) except the proposition that John did not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b. ScalarP of (27):  
 The proposition that John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is the most likely to be true among the propositions in ALT((27)).

*even*의 의미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30b)이다. 왜 문장에 부정이 나타나면 단언이 가장 가능성이 낮은 명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명제로 바뀌는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영향권 이론 (Karttunen and Peters 1979, Wilkinson 1996 등)은 LF에서는 *even*이 부정보다 더 넓은 영향권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7)의 LF는 (31a)와 같이 되며, 이 때 ALT((27))은 앞에서 봤던 (29)와 같이 된다 (이하 (31b)로 반복). 그리고 ExistP는 (31c), ScalarP는 (31d)와 같이 된다. 즉 *even*이 부정보다 넓은 영향권을 취하면 John이 ‘Where the Wild Things Are’를 읽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30b) 대신 John이 ‘Where the Wild Things Are’를 읽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의미적으로 동치인 전제를 생성할 수 있다.

- (31) a. LF of (27): even [not [John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b. ALT((27)) = {John did not read *Ulysses*,  
 John did not read *Pride and Prejudice*,  
 John did not read *Alice in Wonderland*,  
 John did not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c. ExistP of (27):  
 There is a proposition which is true in ALT((27)) except the proposition that John did not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d. ScalarP of (27):  
 The proposition that John did not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is the least likely to be true among the propositions in ALT((17)).

이러한 이론에 반해서 Rooth (1985) 등은 어휘적 중의성 이론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영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even*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긍정극어 *even*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극어 *even*이다 (이하 구별을 위해  $even_{npi}$ 로 표기). (27)과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even*은 따라서  $even_{npi}$ 이며, 그 형식화는 (32a)와 같다.<sup>8</sup> 이 경우 LF는 (32b), 대체명제들의 집합은 (32c)가 된다. 그리고 ExistP와 ScalarP도 각각 (32d)와 (32e)처럼 바뀌게 된다.

- (32) a.  $[[even_{npi}]](Alt(p))(p)(w)$  is defined iff  
 (i)  $\exists q \in ALT(p)[q \neq p \wedge q(w) = 0]$ , and (ExistP)  
 (ii)  $\forall q \in ALT(p)[q \neq p \rightarrow q \leq_{likely/expecte} p]$  (ScalarP)  
 If defined,  $[[even_{npi}]](Alt(p))(p)(w) = p(w)$   
 b. LF of (27): not [ $even_{npi}$ [John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c. ALT'((27)) = {John read *Ulysses*,  
 John read *Pride and Prejudice*,

<sup>8</sup> (32a)에서 기본명제  $p$ 가 가장 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명제가 됨에 주목하자. 또한  $even_{npi}$ 가 내놓는 명제는 기본명제  $p$ 이다. 이것이  $even_{npi}$ 보다 상위에 있는 부정과 결합해서 단언 전체가 부정되게 된다.

John read *Alice in Wonderland*,  
 John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

d. ExistP of (27):

There is a proposition which is not true in  $ALT'((27))$  except the proposition that John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e. ScalarP of (27):

The proposition that John read *Where the Wild Things Are* is the most likely to be true among the propositions in  $ALT'((27))$ .

$even_{npi}$ 는 부정의 영향권 아래에서 나타나므로 이것이 생성하는 대체명제들의 집합은 부정을 포함하지 않는 명제들의 집합, 즉 (32b)와 같이 된다. 이것들 중에 참이 아닌 명제가 단언을 제외하고 하나가 더 있는 것이므로 ExistP도 (32c)와 같다. 즉 참이 아닌 명제가 대체명제들의 집합에 하나 이상 더 존재한다는 전제가 생겨난다. 그리고 ScalarP 역시  $ALT'((27))$ 에 있는 명제들 중에서 부정을 제외한 단언이 가장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즉 (32d)와 같이 된다.

이 두 가지 이론 가운데 어떠한 이론이 옳은 이론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지만 이 논문은 적어도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만 살펴보자면, 앞에서 제시된 분석이 *even*에 대한 어휘적 중의성 이론보다는 영향권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하의 절에서 주장할 것이다.

## 5. 제안 2: 양보조건문과 *even*에 대한 두 가지 이론

*even*이 포함된 양보조건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even*과 동반된 초점은 조건문의 전건에서 나타나는 반면 *even*의 영향권은 조건문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에 기반하여서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즉 초점이 두 개의 대체명제만 만들어내는 경우는 *even*의 두 가지 전제 때문에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반면, 초점이 여러 개의 대체명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다: 표면상 *even*이 조건문의 전건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조건문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을 살펴보자. 흥미롭게도, 영어화자들은 *even*이 조건문의 전건에 나타나는 경우와 *even*이 *if*절 앞에 나타나는 경우의 의미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즉 (33a)와 (33b)는 의미적으로 거의 동치인 것으로 여겨진다.

- (33) a. Even 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b. If John drank even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 경우와는 달리,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경우 *even*이 조건문의 전건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처럼 여겨진다. (34)를 보면, *even*을 조건문의 전건 어디에 위치시키든 문장은 기껏해야 아주 이상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다.

- (34) If (<sup>??</sup>/<sub>\*</sub>even) the bridge (<sup>??</sup>/<sub>\*</sub>even) were (<sup>??</sup>/<sub>\*</sub>even) standing I would not cross.

하지만 (34)와 같은 결과만 놓고 *even*이 일반적인 *even*과는 다르다거나, 가능성이 두 개로 한정되는 경우 *even*이 표면적으로 조건문의 전건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even*이 초점을 성분통어 (c-command)해야 한다는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Rooth 1985) (34)가 가리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절의 참/거짓을 결정하는 기능핵의 위치가 절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상단, 소위 CP 영역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긍정/부정을 나타내는 기능핵의 위치가 (Rizzi 1997의 FocusP 처럼) 구조적으로 *if*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even*이 조건문의 전건의 아래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sup>9</sup>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의 (23)번에서 제시된 예와 같이 참/거짓이 아니라도 가능성이 두 가지로 제한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 반복).

- (35) a. Even if you placed it [in]<sub>f</sub>doors, this plant would die.  
b. Even if the coin turned up [heads]<sub>f</sub>, she would claim she won.  
c. Even if Roger Ebert gave thumbs [up]<sub>f</sub> to that film, I wouldn't see it.

이러한 경우 명확히 초점이 *if*절 안에, C인 *if*보다도 훨씬 구조적으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even*이 표면구조에서 *if*절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even*이 초점을 성분통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장의 경우 *even*이 조건문의 전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경우 *even*이 조건문의 전건 밖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전건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의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36a,b,c)는 각각 (35a,b,c)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며,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 역시 동일하다.

- (36) a. If you even placed it [in]<sub>f</sub>doors, this plant would die.  
b. If the coin even turned up [heads]<sub>f</sub>, she would claim she won.  
c. If Roger Ebert even gave thumbs [up]<sub>f</sub> to that film, I wouldn't see it.

이상에서 우리는 초점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even*이 *if* 앞에 나타나든 조건문의 전건 안쪽에서 나타나든 의미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up>9</sup> 예문 (18a)에서 제시된 LF는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여서 진리치 초점의 위치를 *if* 바로 아래에 두었다.

앞에서 살펴본 *even*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의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even*이 조건문의 전건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밖에서 나타나는 경우 의미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향권 이론에서는 이 점을 LF에서 *even*이 조건문의 전건 밖으로 이동하여서 조건문 전체를 영향권으로 취한다고 가정하여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even*이 조건문 전체를 영향권 아래에 두려면 *even*은 LF에서 이동하여서 전건과 후건을 포함한 조건문 전체를 영향권 아래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33a=37a)와 (33b=37b)는 (편의상 아래에 반복) 동일하게 (37c)와 같은 LF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10</sup>

- (37) a. Even 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b. If John drank even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c. LF: even [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양보조건문의 기본적 의미에도 좀 더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직관적으로, 양보조건문의 경우 전건이 참이 될 때 후건이 참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은 *even*이 조건문 전체를 영향권으로 두어서 전건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일, 즉 조건문 전체가 참이 될 가능성이 다른 대체명제(로 포함된 조건문)가 참이 될 가능성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만족된다. 즉 (37a)나 (37b)의 기본명제 (*If John drank one ounce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는 모두 초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다른 대체명제들 (예를 들어서 *If John drank two ounces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이나 *If John drank one pint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등)보다 참이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휘적 중의성 이론에서는 *even*이 조건문의 전건 안에 나타나는 경우와 전건 밖에 나타나는 경우의 차이, 그리고 양보조건문에 대한 의미적 직관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조건문의 전건은 전형적인 하향함축 (downward entailment: 이하 DE) 환경이며, 따라서 어휘적 중의성 이론에 따르면 조건문의 전건에서는 *even*<sub>ppi</sub>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조건문의 후건은 DE 환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건문 전체 역시 DE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조건문 앞에 나타나는 *even*은 *even*<sub>ppi</sub>가 아니며, 더 나아가, *even*<sub>ppi</sub>가 조건문의 전건 안에 나타날 때에는 조건문 전체를 영향권으로 취할 수 없다 (위의 32의 LF에서 *even*<sub>ppi</sub>가 부정보다 좁은 영향권을 취하고, 대체명제들의 집합 역시 부정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자). 따라서 어휘적 중의성 이론에서 (37a)의 LF는 (38a), (37b)의 LF는 (38b)가 된다.<sup>11</sup>

- (38) 어휘적 중의성 이론에서의 LF  
 a. LF of (37a): [*even*<sub>ppi</sub>[if 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sup>10</sup> 위에서 보았듯이,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과 후건함축 양보조건문 모두 *even*이 표면구조에서 전건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같은 의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의상 이하에서는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의 예만 가지고 논의하기로 한다.

<sup>11</sup> 여기에서 DE에 나타나지 않는 *even*을 편의상 *even*<sub>ppi</sub>라고 부르기로 하자.

- b. LF of (37b): [if [even<sub>npi</sub>[John drank [one ounce]<sub>f</sub> of whiskey]], she would fire him]

다시 말해, (37b)의 *even*은 (37a)의 *even*과 다른 even<sub>npi</sub>이며, 조건문 전체를 영향권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37a)와 (37b)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사실, 특히 ScalarP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37a)와 (37b)에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의미는 위스키 1온스만 마셔도 그녀가 그를 해고할 것이라는 명제가 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휘적 중의성 이론에서 가정되는 (37b)의 LF, 즉 (38b)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도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ScalarP는 기껏해야 John이 1온스의 위스키를 마실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밖에는 없으며, 여기에서 (37b)의 직관적인 의미, 즉 양보조건문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별도의 가정이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과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구분이 조건문의 전건 안에 *even*이 나타날 때에도 유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33b와 36 참조). 또한 앞서 3절의 논의에서 우리는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과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의 구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even*이 조건문 전체를 영향권으로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였다. 그렇다면 DE 환경 아래에서 나타나는 *even*이 even<sub>npi</sub>임을 가정하는 영향권 이론이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38)에서 보여졌듯이, 어휘적 중의성 이론에서는 *even*이 조건문 전건 안에서 나타날 때 *even*을 LF에서 조건문 전건 밖으로 이동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에 대한 분석, 그리고 *even*이 조건문 전건 안에서 나타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양보조건문의 의미가 나타나고 양보조건문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어휘적 중의성 이론보다는 영향권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한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주장이 영향권 이론을 지지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even-if* 양보조건문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적어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even*의 의미 해석에 대한 두 가지 이론 사이의 논쟁에서 영향권 이론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준다. 즉 영향권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한 가지 더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 6. 결론 및 남아 있는 문제들

이 논문에서 우리는 Guerzoni and Lim (2007) 및 Bennett (1982)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even-if* 조건문, 후건비함축 양보조건문과 후건함축 양보조건문을 명칭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후건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리고 *even-if*에서 나타나는 *even*의 의미를 일반적인 *even*과 동일하게 분석하고, *even*의 영향권을 조건문 전체로 간주할 때, 그리고 *even*의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올바르게 분석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별도의 임의적 제약 없이 합성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even if* 양보조건문과 그에 대응되는, *even*이 전건 안에 나타나는 조건문을 비교하였을 때, *even if* 양보조건문에 대한 위의 분석이 *even*에 대한 두 가지 이론 가운데 영향권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 논의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에 대한 좀 더 엄밀한 형식화, 조건문의 일반적인 정의 (즉 전건이 가능세계를 양화한다는 것)와 이 논문의 주장에 대한 연결, 다양한 문맥에 대한 고찰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양보의 의미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구문들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분석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though*가 포함된 부사절과 이 부사절에 *even*이 결합한 *even though* 부사절에서도 *even if*에서 나타나는 구분이 나타나는지, 또 나타난다면 유사하게 분석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sup>12</sup>

양보의 의미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구문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구문을 언급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바로 *even*이 나타나지 않지만 양보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문이다. 이러한 조건문에 대한 예로 (39)를 들어 보자 (세종 한영 병렬 말뭉치, rb0604에서 추출한 예문이며, 번역 역시 동일한 말뭉치에서 따 왔다).

(39) In 2002, we all visited Korea, if only through telecasts, to enjoy the World Cup Finals.

‘2002년에 우리 모두는 월드컵을 즐기기 위해 사실상 한국에 다녀온 거나 다름없다.’

여기에서 조건문의 전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if only through telecasts*이며, 후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we all visited Korea in 2002*라고 할 수 있다. 즉 위의 조건문은 ‘방송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좀 더 자연스럽게 양보의 의미를 반영해서 조건문을 다시 해석한다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된다. 왜 이러한 조건문이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가? 또 어떠한 조건문이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even-if* 양보조건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앞에서 *even-if* 양보조건문의 *even*은 일반적인 *even*과 마찬가지로의 *even*이며, 조건문 전체에 대해서 ExistP와 ScalarP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양보의 의미, 즉 조건문 전체가 참일 가능성이 낮다는, 또는 전건이 참이 될 때 후건이 참이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even*의 ScalarP, 즉 *even*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명제가 참이 될 가능성이 대체명제의 집합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명제가 참이 될 가능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다는 전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건과 후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조건문을 양보조건문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위의 (38)에서, 방송을 통해서만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sup>12</sup> 이 부분을 언급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방송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해줄 뿐 한국을 문자적으로 방문할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따라서 전건이 참이 될 때 후건이 참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기에, 또는 전건과 후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떨어지기에, (38)과 같은 조건문은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본다면 양보조건문에서 도입하는 양보라는 의미 역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떨어지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좀 더 엄밀하게 형식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even*이 없지만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든 조건문이 바로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점 역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References

- Bennett, Jonathan. 1982. *Even if*.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403-418.
- Creswell, Cassandre. 2000. The discourse function of verum focus in wh-questions. In Masako Hirotoni, Andries Coetzee, Nancy Hall, and Ji-Young Kim (eds.), *Proceedings of North East Linguistics Society* 30. 165-180.
- Guerzoni, Elena. 2003. *Why Even Ask?* Ph.D. Thesis, MIT.
- Guerzoni, Elena, and Dongsik Lim. 2007. *Even if*, factivity, and focus. In Estela Puig-Waldmüller (ed.),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11. 276-290. Barcelona: Universitat Pompeu Fabra.
- Giannakidou, Anastasia. 2007. The landscape of EVE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5, 39-81.
- Heim, Irene, and Angelika Kratzer. 1998.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London: Blackwell.
- Höhle, Tilman. 1992. Über Verum-Fokus im Deutschen. *Linguistische Berichte, Sonderheft* 4, 112-141.
- Karttunen, Lauri, and Stanley Peters. 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In Choon-Kyu Oh and David A. Dinneen (eds.), *Syntax and Semantics 11: Presupposition*. 1-56. New York: Academic Press.
- König, Ekkehard. 1986.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areas of contrast, overlap and neutralization. In Elizabeth Closs Traugott, Alice ter Meulen, Judy Snitzer Reily, and Charles A. Ferguson (eds.), *On Conditionals*. 229-246. Cambridge: CUP.
- Laka, M. Itziar. 1990. *Negation in Syntax*. Ph.D. Thesis, MIT.
- Lycan, William. 2001. *Real Conditionals*. Oxford: OUP.

- Rizzi, Luigi.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iliane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281-337. Dordrecht: Kluwer.
- Romero, Maribel, and Chung-Hye Han. 2004. On negative yes/no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609-658.
- Rooth, Mats. 1985. *Association with Focus*. Ph.D. Thesis, UMass Amherst.
- Rooth, Mats. 1996. Focus. In Shalom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271-297. London: Blackwell.
- Wilkinson, Karina. 1996. The scope of *even*. *Natural Language Semantics* 4, 193-215.

접수 일자: 2014년 10월 31일

수정 일자: 2014년 12월 8일

게재 결정: 2014년 12월 10일